

日本 디자인 教育의 概況과 未來의 비전

An Outlook of Design Education in Japan and its Vision in the Future.

김명석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학과

1. 서론

2. 일본 디자인 교육의 개황

- 2-1. 디자인운동과 시대구분
- 2-2. 두 갈래의 디자인 교육
- 2-3. 산업공예소의 전문가 활용

3. 일본디자인교육의 현상과 미래의 비전

- 3-1. 전후 일본 사회의 동향
- 3-2. 일본 디자인교육의 현상

4. 결론

참고 문헌

要約

일본의 디자인 운동은 1870년대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제 4기로 구분하는데, 그 중 제 1기를 명치시대(Meiji era)개국에서 제 1차 세계대전까지로, 제 2기를 제 2차 세계대전까지, 제 3기를 제2차 대전 직후부터 고도경제성장기 직전인 1960년까지 그리고 제 4기를 1960년 이후로 구분한다. 일본의 디자인 교육은 이러한 시대구분 속에서 2차 대전 전에는 유럽에서 시작된 갖가지 근대디자인운동, 즉 윌리엄 모리스의 미술공예운동, 독일공작연맹, 바우하우스의 영향을 받았으며, 대전 후에는 미국의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일찍이 서구문명을 도입한 일본은 독자적인 디자인교육을 표방하며 1940년도에는 대학에 디자인학과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그 후 정부의 디자인 정책에 힘입어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거품경제 붕괴 이후 일본의 전 대학에서는 교육개혁의 바람이 크게 일고 있다.

Abstract

In the history of the design movement since 1870s in Japan, four eras can be seen; the first era started with the opening of Meiji era and continued to the World War I, the second era to the World War II, the third era from right after the second world war to 1960, and the fourth era after 1960. Before the second world war, the design education of Japan had been influenced by plenty of modern design movements which brought about in Europe such as Art and Craft Movement of William Morris, Deutscher Werkbund, and Bauhaus and by American industrial design after the World War II. Japan which early introduced western civilization established design department in universities in 1940 professing itself to be a original design education. And Japan has kept making progresses with the help of design policies of the government until now, and has seen the tornadoes of education revolution in every university after the collapse of bubble economy.

1. 서론

1990년대에 들어서며 일본에서는 새로운 교육체제의 디자인계 대학이 문을 열거나 디자인 관련 학과의 신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와 같이 예술계열이나 공학계열 뿐만 아니라 가정학부나 인문학부에도 새로운 디자인학과가 개설되고 생활문화, 인간과학, 환경정보 등 새로운 테두리 안에서의 디자인학과 구상도 진전되고 있는 국면이다. 또한 기존의 디자인학과에서도 학과의 재구성이나 커리큘럼의 개혁이 일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디자인교육 자체의 변혁임과 동시에 사회전체의 디자인에 대한 이해의 확대와 요청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우리 나라의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선진국인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의 예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경제성장과 함께 디자인은 발전해 왔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디자인은 기업의 제품개발 뿐만 아니라 생활이나 산업, 사회 등 다방면에서 소구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갈구하는 디자인이란 단지 색이나 형태 그리고 재료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조형가로서의 디자이너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디자이너란 인간생활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여 사회로 향한 가설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문제해결을 이해할 수 있는 직능으로서 변신해야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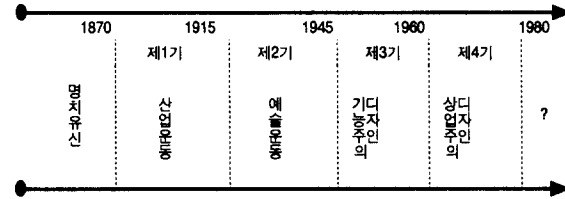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20세기말에서 새롭게 변신하고자 하는 일본의 디자인교육에 중점을 두고 과거의 변천사를 통한 변화과정에 대해 문헌을 중심으로 리뷰하여 새로운 시대상에 맞는 디자인의 교육방향을 조망해 보는 것이다.

2. 일본 디자인교육의 개황(概況)

2-1. 디자인운동과 시대구분

일본의 디자인운동의 시발점은 명치유신(明治維新)으로 거슬러 올라가 지금부터 130여년 전으로 잡는다. 이 기간을 이즈하라 에이치(出原榮一)는 네 개의 시대로 구분하고 있는데 제

1기를 명치시대의 개국으로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로 보고, 제2기를 제2차 세계대전까지, 제3기를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고도 경제성장기 직전인 1960대까지, 그리고 제4기를 1960년 이후로 구분하였다.¹⁾



(그림 1) 일본 디자인운동의 시대구분

출처 : 이즈하라 에이치저, 일본의 디자인운동, 펠리칸사, 1989, 재구성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사회, 문화 전반에 일대변혁을 가져온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제1차 세계대전도 일본의 산업이나 사상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디자인과 관련지어서는 기능주의와 기타 근대 디자인운동의 사상이 구미로부터 유입된 것이 1915년 이후였으므로 우선 사상적인 면에서 제1차 세계대전을 경계로 하여 시대를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일본 디자인교육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운동의 개략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제1기에서는 유럽미술의 영향을 받아 일본의 전통적 「기예」(技藝/기술과 예술의 통칭)로부터 우선 미술가들이 독립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서양식의 근대공업과 일본의 전통공예가 융합되는 시기였다.²⁾

이러한 움직임은 제2기가 되면서 새로운 사상과 함께 재편성되지만, 당시까지 「공예」라고 불리던 분야에서 「미술공예」가 분리되어 회화, 조각 등의 「미술」 분야에 합류되고, 그 이외의 전통공예는 어느 것이나 쓰임새와 아름다움(用과美)의 융합이라는 점을 공통의 이념으로 삼으며 예술적 신조형을 부르짖는 「신공예운동」과, 민중 생활속에서 배양되어 전통의 맛을 중시하는 「민예운동」, 그리고 근대의 공업기

1) Eiichi Izuhara, *Design Movement in Japan*, Pelikan Co. 1989. p.19

2) 앞의 책, p.21

술과 전통공예의 통합을 기도한 「산업공예운동」의 3방향으로 발전되었다. 인맥상으로 보면 이 산업공예운동에 속하는 사람들이 제3기에서 발전하는 인더스트리얼디자인의 주류를 이루게 되며 이는 우리의 현실과도 공통점이 있다. 다만 이들 중에서 수공예의 참맛을 버릴 수 없었던 사람들은 신공예운동에 속하는 사람들의 일부와 함께 중·소량생산에 적합한 크래프트 디자인분야를 개척하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보다는 순수예술의 방향을 강력히 지향하던 공예가들은 현대공예(modern craft)라고 불리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였다. 한편 1960년부터는 2차 대전이후 신제(新制) 대학교육을 받았던 디자이너들이 실사회에 나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여 그후 제4기에 이르러 디자인 계의 주역이 되면서 리더십을 갖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일본의 디자인 계를 이끌어 오고 있다.

2-2. 두 갈래의 디자인교육

일본의 디자인교육은 대략 두 갈래의 길을 걸어왔다고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유럽에서 시작한 갖가지의 근대 디자인운동, 즉, 윌리엄 모리스의 미술공예운동(Art and Craft Movements), 독일공작연맹(Deutscher Werkbund), 바우하우스(Bauhaus)의 영향을 받았으며, 대전 후에는 산업과의 연계하에 발전해 온 미국의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에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2차대전 전의 바우하우스의 영향은 특히 재래의 미술교육 개혁에 기여했지만, 그러나 즉시적으로 일본의 디자인 전문교육이 확립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대학 수준의 교육기관에서 디자인교육이 시작된 것은 1950년대 초이다.

1950년대는 일본의 디자인 여명기였다. 2차 대전전까지 한자어로 표기되었던 「도안」(圖案)이나 「의장」(意匠)이라는 용어대신에 「디자인」(design)이라는 앵글로색슨계의 용어를 외래어로서 그대로 표기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이다. 일본에서는 알파벳문자로 된 외래어

는 카타카나(カタカナ)로 표기한다. 이 카타카나로 표기된 디자인(デザイン)이라는 단어는 당시 표의문자인 한자의 고풍스런 이미지에서 해방되어 평화, 민주주의, 자유, 경제부흥이라는 새로운 변혁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신선한 느낌을 주었다. 더욱이 이러한 디자인의 표본이 된 것은 미국식의 문화와 물질적 번영, 그리고 풍요를 자랑하는 미국의 생활양식이었으며, 구체적 상징물로서 가전제품, 자가용차 등 효율적이고 편리한 상품군이였다.³⁾

이러한 풍요로운 라이프스타일과 경제성장을 목표로 일본의 산업계, 교육계 그리고 디자인계는 1950년대 전반, 단기간에 걸쳐 극적인 변화를 이루었다. 제품디자인을 위한 해외연수계획도 그 하나로서, 전후 일본의 산업계에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계획은 통상산업성에서 제도화되어 1955년부터 1966년까지 일본무역진흥회(JETRO)에 의해 운영된 디자인의 해외유학생 파견제도였다. 이와 같이 일본정부의 디자인 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행은 우리 나라의 실정 과도 크게 비교된다. 이 같은 노력은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을 크게 개량하고, 수출을 진흥시키기 위한 시도로 시작되었다.

이 제도가 실시된 11년 동안 디자인분야-대부분 기업의 디자인부문-로부터 82명의 유학생이 선발되어 1년간 해외의 미술·디자인관련 대학에 유학하거나, 디자인 사무소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왔다. 대상국은 대부분이 미국이었지만 덴마크나 스웨덴, 핀란드, 서독(특히 울름조형대학),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에 다녀온 사람도 많았다. 미국에 건너간 유학생의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파사디나의 아트센터스쿨(현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ACCD)에서 배웠지만, 뉴욕의 프랫 인스티튜트(Pratt Institute)나 시카고의 일리노이 공과대학(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IIT), 크랜브룩 아카데미(Cranbrook Academy of Arts) 등의 교육기관에서도 일본인 유학생을 받아들였다.

한편 통산성의 공예지도소(1952년에 공업기

3) Made in Japan 1950-1994, Santory Museum, 1994, p.26

술원 산업공예시험소로 개칭)의 기관지로 1932년부터 1974년까지 42년간 간행된 월간지 『공예뉴스』(Industrial Art News)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전후에는 해외의 디자인정보나 디자인 교육방법, 실제의 디자인 활동에 관한 논문 등, 고도의 디자인 방법론과 연구에 관한 논문도 게재되고 특히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의 실천방법으로부터 교육과 연구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2-3. 산업공예시험소의 전문가 활용

1956년부터 1971년까지의 15년간 산업공예시험소에서 초빙한 해외의 디자인 전문가를 중심으로 강습회나 워크숍을 개최하여 디자인교육과 보급에 주력하였다. 또 1956년부터 60년까지는 주로 미국의 저명한 디자이너나 디자인 교육자를 초청하여 지식을 전파한 결과 미국의 디자인 동향이나 실태에 관한 정보가 일본에 입수되었다. 최근 우리 나라의 디자인 진흥기관에서도 해외의 많은 디자이너를 초빙하여 워크숍, 강습회, 기술지도를 행하고 있으나 실효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평가가 따라야 할 것이다.

1961년부터 63년에 걸쳐서는 미국에서 주로 소비자교육이나 인간공학분야의 지도적인 전문가를 초청하였다. 또 1964년부터 67년까지는 주로 유럽지역의 유명한 디자이너나 디자인 연구자를 초청하였으며, 68년부터 71년에는 새로운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유럽으로부터 선진적인 디자인 이론가나 연구자를 초빙하였다. 이와 같이 시대적 맥락에서 일본의 서구디자인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매우 실리적인 순서에 따라 정도높은 전략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이해할 수 있다.

1950년대 중반까지는 일본의 디자인 활동은 아직 민간기업에 침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산업공예시험소는 어떤 의미에서 디자인의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독특한 곳이었고 그곳에서 디자인의 실험이나 연구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전후 일본의 디자인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친 디자이너, 평론가, 교육자 등으로 선구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 한때 산업공예시험소에

적을 두고 활동한 사람이 많았다.

2-4. 대학교육의 시작

2차대전의 패전이후 일본 사회는 매우 어수선했지만 교육제도의 개혁에 의해 1950년에는 신제대학이 발족되며 고등교육의 장이 넓어짐과 동시에 디자인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도쿄(東京)지역에는 공학계 치바대학(千葉大學)에 공업의장학과가, 예술계에서는 도쿄예술대학(東京藝術大學)에 도안과가 개설되고, 교육계에는 도쿄교육대학(현재 츠쿠바대학(筑波大學)의 전신)등 국립대학에서 디자인교육이 시작되었다. 또한 오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관서지방(關西地方)에서도 교토공예섬유대학(京都市立纖維大學)이나 교토시립예술대학(京都市立藝術大學) 등이 설립되었다.

1951년에 개설된 치바대학 공업의장학과의 전신인 도쿄고등공업학교(東京高等工業學校)의 설립은 1901년이었으며, 도쿄예술대학의 전신인 도쿄미술학교의 설립은 1887년으로서 두 학교는 오랜 전통에 빛나는 국립교육기관으로서 전자는 공학부에 속한 디자인교육기관으로서, 후자는 예술학부의 디자인교육으로서 각각 고유의 특색을 형성했고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 일본 디자인 계를 이끌어 온 양대 산맥의 역할을 하고있다. 그러나 독자적인 디자인 교육방침을 표방하는 국공립대학도 있었으며, 한 예로 1899년에 설립된 교토공예섬유대학을 들 수 있다. 특히 이 대학에서는 전통공예기법과 근대기술의 융합으로 형성된 새로운 디자인 기술교육에 역점을 두었다.

한편 1954년에는 복식디자이너 구와사와 요코(桑澤洋子, 1910-1977)는 「구와사와 디자인연구소」라는 전문학교를 세웠으며, 1966년에는 도쿄조형대학을 창설하였다. 미술교육분야에서는 무사시노(武藏野) 미술대학이나 타마(多摩) 미술대학과 같이 사립대학에서 자유로운 디자인 실험교육이 행하여졌다. 특히 무사시노 미술대학 조형학부에는 시각전달디자인학과와 공예공업디자인학과(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 크래프트 디자인전공으로 나뉨), 예능디자인학과(무대미술과 디스플레이디자인코스)로 나뉨, 현 공

간연출디자인학과), 건축학과 등으로 세분화되어 전문교육이 시작되었다. 또한 1967년에는 기초디자인학과라는 새로운 개념의 학과가 탄생하였는데, 개설목적은 디자인을 통합하여 새로운 타입의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학제적인 이론이나 교육방법에 중점을 둔 디자인학을 탐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러한 컨셉을 「기초디자인학」이라고 정의했으며, 새로운 디자인 전문가란 디자인의 기획, 계획, 연구, 교육, 평론 등의 영역이나 경계 영역에서 스스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여 창조적으로 대처하며 활동하는 인재를 뜻하였다.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로 지구환경이 크게 변모되고 있는 현재에 이르러서도 디자인의 기초연구가 중시되고 있으며, 디자인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개성적인 신세대 디자인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8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역 사회나 지방 산업의 중시와 함께 일본 각지에 새로운 디자인계 대학이나 학부, 학과가 설립되었다. 그 중 코베(神戸)예술 공과대학과 토호쿠(東北)예술공과대학, 나가오카(長岡)조형대학은 지방에 신설된 대학의 예이다. 이중 2개의 예술공과대학은 디자인을 예술과 공학, 또는 테크놀러지와 융합한 학문분야라고 정의하고 그 이념으로 대학을 설립하였다. 물론 이전에도 이미 1968년에 국립으로 큐슈예술공과대학(九州藝術工科大学)이 설립되어 예술과 공학의 통합개념의 대학교육이 시작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에서는 1986년에야 최초의 과학영재교육기관으로 설립된 한국과학기술대학(1989년에 한국과학기술원과 통합하여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 개칭함)에서 공학적이초 위에 과학적 사고와 조형능력을 겸비한 산업디자인교육이 시작되어 성공적인 교육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일본에서는 예술공과대학은 예술과 공학을 계층적인 종적서열로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통합에 기초한 교육을 위한 대등한 이념으로 병치시키고 있다. 즉 스페셜리스트의 양성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의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술공학 또는 조형공학이라는 개념은 기초디자인학이라는 컨셉과도 공통점이 많고 최근에 일본에 신설되는 대학에 예술공학이라는 개념이 크게 작용하는 경향은 총합적인 디자인교육이라는 이념이 새롭게 추구되기 시작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즉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거기에 즉각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3. 일본디자인교육의 현상과 미래의 비전

3-1. 전후 일본사회의 동향

패전 후 1947년 1인당 국민소득이 36달러에 불과하여 쌀밥을 배부르게 먹는 것이 소원이었던 일본이 1950년에는 113달러로 상승하고, 1955년에는 227달러로 올라가며 국민차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흑백 TV, 전기세탁기, 냉장고가 필수품으로 등장하며 1960년에 395달러가 되면서 본격적인 자동차시대가 도래하였다.

1965년에는 국민소득이 709달러가 되며, 섬유, 전기, 자동차산업의 세 분야는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게 되고 카(car), 쿨러(cooler), 컬러TV(color TV)가 유행하는 3C시대를 맞게 된다.⁴⁾ 1970년에는 아시아 최초의 만국박람회(EXPO'70 OSAKA)가 열리고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일본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산업디자인분야의 역할이 매우 크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일본은 사회전체가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어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디자인 교육분야에서도 그 개념이 크게 확대되고 새로운 디자인계 대학이 창설되고 있는 실정이다.

3-2. 일본 디자인교육의 현상

일본의 산업디자인 진흥기관인 「일본산업디자인진흥회」(Japan Industrial Design Promotion Organization/ JIDPO)에서는 일본 국내의 디자인 교육활동을 파악함과 동시에 21세기 디자인교육을 전망할 목적으로 1992년도에 「디

4) 토요구치 교, 김명석 역, "일본 산업디자인교육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86 KIT 산업디자인 세미나 강연집, 1986, p.8

자인교육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미술계, 예술계, 공학계 대학을 중심으로 학부 또는 학과내에 디자인교육 과정을 설치하여 교육하고 있는 4년제 대학, 단기대학(전문대학), 전문학교 186개교 135학과를 대상으로 하였다.5)

조사내용은 ①대학개요 ②학과개요 ③디자인 관련연구 및 교육개요 ④졸업생의 진로 ⑤디자인코스의 특징 등이었다. 이하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발췌·정리하였다. 이 조사에 회답한 교육기관은 73개교(4년제대학 48교, 단기대학 14교, 전문학교 9교, 고등전문학교 2교)였으며 <표-1>은 1993년도 졸업생 수를 나타낸다.

(표-1) 1993년도 일본 디자인교육기관의 졸업생 수

교육기관	졸업생 수(명)	비율(%)
4년제 대학	3,190	49.3
단기대학	1,704	26.3
전문학교	1,433	22.1
고등전문학교	150	2.3
계	6,477	100

위의 표에서 보면 디자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6,500여명의 학생이 매년 사회에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교육학부나 가정학부에 디자인학과를 둔 일반대학도 포함되어 있어 졸업생 모두가 전문적 디자인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며, 또 전원이 디자이너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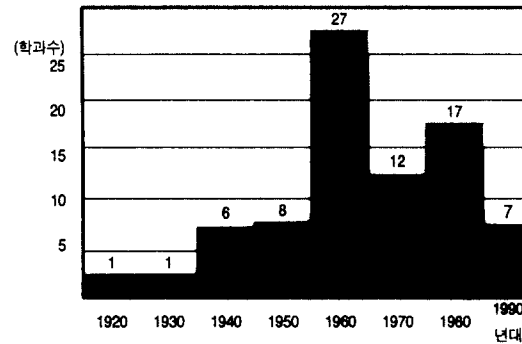
<표-2>는 4년제 대학에서의 소속학부를 나타내고 있는데, 4년제 대학 48개교 중에서 미술 또는 예술학부 소속이 21개교로서 1600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학부, 공학부, 가정학부 순으로 개설되어있다. 그러나 졸업생수로는 공학부 소속이 762명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일본의 4년제 대학 디자인학과의 소속학부

소속학부	대학 수	졸업생 수(명)	비율(%)
미술·예술학부	21	1,612	50.5
공학부	8	762	23.9
가정학부	6	574	18.0
교육학부	9	157	4.9
기타	4	85	2.7
계	73	3,190	100.0

5) 1992년도 디자인교육 실태조사, Design News, No.222, 일본산업디자인진흥회, 1993, pp.12-13

다음으로 <그림2>는 디자인관련학과의 설립 시기를 집계한 것으로 일본에서는 1901년 도쿄고등공예학교(현 치바대학)의 설립으로 디자인교육의 효시를 이루었지만, 본격적인 현대적 의미의 디자인이 도입된 것은 2차대전 이후이며, 대학에 디자인학과가 설립된 것은 1940년대 후반이다.



(그림 2) 디자인 관련학과의 설립시기
출처 : Design News No. 222, JIDPO, 1993

그러나 이 시기의 디자인교육은 교육제도의 개혁과 함께 설립된 국립대학의 교육학부에 설치되어 주로 교원양성과정 프로그램에 속하였으며 조형으로서의 디자인교육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50년대에 설립된 디자인학과는 그 대부분이 미술계 대학에서 산업미술, 또는 공예의 연장선 상으로서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치바대학처럼 공학부에 공업의장으로서 도입된 경우도 있다. 60년대 들어서면 27개교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데 이는 일본경제의 고도성장과정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즈음 산업계에서는 프로덕트 디자인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며 이와 함께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의 육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그때까지의 조형학부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학부나 인문학부, 또는 문학부 등 생활전반에서 디자인 영역을 확대하여 도입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 70년대에 들어가면 수는 약간 줄어들지만 디자인학과 설립 움직임은 오히려 단기대학 설립과 함께 많아지고, 지금까지의 종합대학의 편제에서 디자인전문 단과대학의 설립이 많아진다. 특히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인간공학이나 조형공학 등의 학부에 디자인학과가 설치되고, 디자인에 대한 인식은 물질의 형태와 색채적 수단으로서의 필요성에

서 물질과 인간, 그리고 현상학 등의 영역에의 전이가 눈에 띄게 된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경영자 원이나 전략으로서 디자인 또는 디자인경영을 가르치는 학과도 증가하고 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자질도 감성이나 창조성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일본의 디자인 교육기관은 시대에 따라 항상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21세기를 앞두고 또 한차례 변모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4. 결론

일본은 고도대중소비사회 속에서 디자인은 바야흐로 소비의 대상으로 화(化)하였지만, 디자인교육 및 연구분야에서는 디자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내일의 이상으로 삼고 새로운 개념 창출에 대해 끊임없는 노력과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초디자인학에서 출발하여 예술공학, 조형공학과 같이 한자어를 새롭게 조합한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감성공학, 매력공학, 정서공학, 디자인공학이라는 학문분야도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의 소통이 급격히 발달한 오늘날, 차세대 디자인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의 거품경제의 붕괴 이후 경제상황은 디자인 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졸업생들의 취업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함께 디자인계뿐 아니라 일본의 전 대학에서 교육개혁의 바람이 크게 일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은 대학 진학 연령층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반면, 문부성의 대학설치 기준의 강화의 여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사회가 복잡해지며 지금까지의 고정적인 지식체계만으로는 사회의 요청에 부응할 수 없게됨에 있다. 현재 많은 디자인계 대학들이 여러 가지 개혁안을 만들어가며 시험을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과거의 디자인 개념을 확대시켜 경제, 문화, 경영, 지역, 생활 등에 관련지으며 지금까지 스타일로서의 디자인 개념을 벗어나 새로운 디자인을 확립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디자인교육의 과제

는 여러 갈래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그 중 하나가 단순히 조형가를 초월한 디자이너로서의 자질을 어떻게 육성해 갈 것 인가로 생각된다.

일본과 우리 나라의 교육제도는 유사한 부분이 많다. 6·3·3·4의 교육연수도 그대로이다. 과거 매우 벌어졌던 경제수준의 차이도 많이 단축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디자인교육의 허와 실을 잘 연구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내는 일이 후발 국가의 이점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에도 매년 5,000명의 4년제 대학출신의 디자이너가 배출되고 전문대학까지 포함하면 약 3만명의 디자이너가 사회로 나간다는 통계가 있다. 일본의 디자인교육계가 안고 있는 문제는 우리 나라의 그것과도 일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적한 과제는 있어도 디자이너가 21세기를 리드하는 중심어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디자인을 축으로 하여 인간과학, 심리학, 경영학, 컴퓨터공학, 문화인류학 등의 인접학문과의 학제적인 교육체제를 갖추어 21세기에 대비할 디자인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Eiichi Izuhara, *Design Movement in Japan*, Pelikan Co., 1989
2. Made in Japan 1950-1994, Santory Museum, 1994
3. 토요구치 료, 김명석 역, "일본 산업디자인교육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86 KIT 산업디자인 세미나 강연집, 1986
4. NIKKEI DESIGN, NIKKEI BP Co., 1994, 2월, 1995년 9월호
5. DESIGN NEWS, No.204, No.209, No.222, No.226, JIDPO